

#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현지<sup>1</sup> · 신성희<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중, 학생, <sup>2</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The Effects of the Self-identity and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Early Adult

Kim, Hyun Ji<sup>1</sup> · Shin, Sung Hee<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and East-West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Purpose:** The study aim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during early adult by identifying emotional intelligence, his or her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elf-identity and analyzing how th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elf-identity influe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during that period.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 2011 to September 30, 2011. Two hundred men and women who lived in the area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recruited. A total of 18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WIN18.0. **Result:** The particip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identity prove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emotional intelligence also ha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and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 $\beta = .40$ ,  $p < .001$ ), the father's child rearing ( $\beta = .10$ ,  $p < .001$ ) and self-identity ( $\beta = .23$ ,  $p < .001$ ) can determine emotional intelligence to a degree of 43.4% and the mother's attitude was the most influential.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emotional intelligence should be enhanced referring to the two variables in nursing intervention. Furthermore,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childhood or adolescence need to be educat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Key Words:** Adult children, Child-rearing, Attitude, Self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서지능은 감정을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생활에서의 상황을 적절하게 풀어나가거나,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1]. 이러한 정서지능은 전통적으로 측정되었던 학술적

지능 만으로는 삶에 있어 적응, 성공, 만족, 행복 등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지능의 한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모니터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변별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스스로의 사고나 행동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근거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2].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감정이입

**주요어:**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 이 논문은 제 1 저자 김현지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 Hee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Sung Hee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Received: 26 October 2016 Revised: 19 December 2016 Accepted: 29 December 2016

의 능력이 발달되어 사회적 관계형성이 원활하고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난다[3-5]. 즉, 정서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성공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 등 삶의 긍정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했던 개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이다. 이러한 초기 성인기에는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 확대된 인간관계 및 이성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며 그에 따른 부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4%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혼인건수는 2만 1,200건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미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이처럼, 많은 초기 성인들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실패로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되며[6],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사회 적응 등이 늦어져 초기성인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7].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정서지능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가정 및 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2].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애착유형, 부모의 정서상태, 발달사, 양육유형, 아동학대 등이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8], 이러한 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양육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정서지능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9-1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나 적응 등 정서적 능력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서지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및 교육이나 학습을 통하여 변화된다. 또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정서에 대한 변화나 인식, 지각, 표현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5]. 인간의 발달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 이후의 발달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성인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유아나 아동의 정서지능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자아통합화의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13]. 즉, 개인이 자기 존재의 개별성을 타인에게 피력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자아의 통합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아정체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으며 [14],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혼란이나 위기는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거나 왜곡된 적응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15].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정서인식, 명확성 등의 정서지능의 여러 기능들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다[16,17].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성인기 이전의 발달단계인 아동기 및 청소년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의 입장에서 그 변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 성인은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성인에게 정서지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성인기에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과거부터 경험해 왔던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른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어 그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후 성인 초기의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기제를 이해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기 성인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를 파악한다.
- 2) 초기 성인의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정도를 파악한다.
- 3) 초기 성인의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20세에서 29세의 남녀 성인으로, 과거에 양측 부모님의 양육을 모두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05, 효과크기(중간) 0.15, 검정력 .95, 예측요인 3개로 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119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0부 모두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8]가 개발하고 Lee[19]가 번안한 정서지능도구(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지능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소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주의 13문항,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 명확성 11문항, 정서개선에의 믿음을 측정하는 정서개선차원 6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19]의 이 도구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개선차원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개선에의 믿음을 측정하는 정서개선차원 6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주의 13문항, 정서명확성 11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 다.

#### 2)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pstein[20]이 개발하고 전현진[21]이 번안한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 수용 대 거부요인 부모 이상화 요인과 또래 상호작용 요인의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현진[21]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신뢰도가 낮거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했던 28문항을 제외하고 부모 각각 21문항으로 총 42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기 때 부모가 독립심, 자아회복력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켰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 했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요인 각 12문항,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동을 부담으로 느끼고 거부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수용 대 거부요인 각 9문항으로, 부모 각각에 대하여 21문항씩 측정하도록 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부모 각각 21점에서 105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alpha$ =.83,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alpha$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alpha$ =.80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alpha$ =.83이었다.

####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아청[22]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4개의 문항으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의 8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64점에서 3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8이었다.

####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11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회사 7곳과 대학교 4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과정,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Table 1.**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Characteristic	Category	N(%)	Emotional intelligence		t or F	p	Tukey
			M±SD				
Gender	Male	74(39.2)	82.68±10.77		-0.99	.325	
	Female	115(60.8)	84.13±9.10				
Age	20-23	86(45.5)	83.30±9.09		0.19	.825	
	24-26	47(24.9)	83.23±10.95				
	27-29	56(29.6)	84.25±9.95				
Education	High school <sup>a</sup>	100(52.9)	82.66±9.61		4.77	.010	a<b
	College <sup>a</sup>	39(20.6)	81.34±7.23				
	≥University <sup>b</sup>	50(26.5)	87.06±11.04				
Religion	Yes	94(49.7)	83.45±9.82		-0.15	.880	
	No	95(50.3)	83.67±9.82				
Marital status	Single	185(97.9)	83.55±9.85		-0.09	.929	
	Married	4(2.1)	84.00±6.97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Turkey 방법을 사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정서지능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은 남자 82.68점, 여자 84.13점으로 여자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정도에 따른 정서지능은 고졸 82.66점, 전문대졸 81.34 점, 대졸 88.86점, 대학원 이상에서 81.92점으로 통계상으로 대졸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기성인의 정서지능,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정서지능 정도는 120점 만점에 평균 83.56점, 자아 정체감이 320점 만점에 평균 234.81점,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각

105점 만점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평균 77.83점,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평균 74.2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Level of Study Variables (N=189)

Variable	M±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83.56±9.82	40	114
Self-identity	234.81±33.84	126	314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77.83±11.19	47	101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74.25±12.02	44	104

**3. 초기성인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초기 성인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 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정서지능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r=.50, p<.001$ ). 또한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관계( $r=.60, p<.001$ ),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관 계( $r=.45, p<.001$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이 초기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이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07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 었고,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

**Table 3. Correlations with Emotional Intelligence, Self-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N=189)

	1	2	3	4
	<i>r</i> ( <i>p</i> )			
1. Emotional intelligence	1			
2. Self-identity	.50(<.001)	1		
3.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60(<.001)	.50(<.001)	1	
4.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45(<.001)	.40(<.001)	.60(<.001)	1

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55-0.90로 0.1이하였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이 1.10-1.79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서지능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학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43.4%로 나타났다. 초기 성인기의 정서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beta=40$ )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beta=23$ )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beta=10$ )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N=189)**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i>p</i> )
(Constant)	33.20	4.59		7.24		
Self-identity	0.07	0.02	.23***	3.56	.434	27.96 (<.001)
Mother’s attitude	0.40	0.07	.41***	5.43		
Father’s attitude	0.08	0.06	.10***	1.47		

\*\*\**p*<.001.

###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5,8)에서 제시한 성별, 나이, 문화적 변인, 신념 등의 관련 변인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였으나 교육정도에서만 통계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120점 만점에 평균 83.56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연구한

Lee[19]와 Kim 등[23]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서지능은 교육정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중 대졸자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인 자들의 경우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대졸자들보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Salovey & Mayer[2], Lee[2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고 발달한다고 제시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320점 만점에 평균 234.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15,16,17,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 이후의 성인 초기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는 자아정체감의 특점이 연령에 따라 계속 상승경향을 가진다는 Yang[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각 105점 만점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평균 77.83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평균 74.25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16,27]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경우 부모의 기대감이나 성취에 대한 요구도가 여자보다 높아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여자보다 낮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정서지능, 자아정체감,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12,2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29]의 결과와 일치한다. Han[29]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갈수록 정서지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는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 등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였다고 말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립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 또한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인의 사회적 적응이나 타인과

의 긍정적인 관계[3], 삶의 질[5]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은 어린 시절의 양육환경,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돌봄 및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성장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연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나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립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43.4%였다.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이 그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3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Kim[2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의 하위개념인 정서조절의 능력이 높다고 밝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9]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지능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만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대상자 중재 시 특히 아버지의 양육에서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관계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개념인 자아개념과 정서지능의 관계나,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그 맥락을 찾아보고자 한다. Choi와 Kim의 연구 [14]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주체성이 확고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높다고 밝히며,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정상적인 집단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16]에서 정서의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형성이 부족하고 정서적 관계에서 인지적 해석의 오류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자아발달의 초기수준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주의에 대한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아정체감은 스스로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에 대해 살펴본 Ha[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지능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인기에서 정서지능은 사회적 관계의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적응, 발달과제인 친밀감의 적절한 성취, 대인관계의 능력 향상, 우울 및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성인의 적절한 역할 및 능력의 획득은 다음 단계의 발달단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기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성인기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성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은 정서지능을 4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초기 성인기를 위한 간호중재 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성인기 이전의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대한 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분류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정서지능

의 개념도 하위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유형들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들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정서지능을 실제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1995.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1996;22(2):89-114. [http://dx.doi.org/10.1016/s0160-2896\(96\)90011-2](http://dx.doi.org/10.1016/s0160-2896(96)90011-2)
- Kim JH, Kim JN.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Trauma in Childh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after Growing U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5):115-139.
- Lee SK, Choi YS, Kang S. A structural model analysis between mothers' affectionate - rejective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14;18(1):90-113.
- Kim HJ.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lligence on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dissertation]. Incheon: Inha University; 2007. pp.1-156.
- Kim JH, Park EG. The effects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016;27(3):257-284.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257>
- Nam CH.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De-standardization of Life-course in Korea - Focused on the Sequence Analysis of Men's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15;39(1):139-174.
- Lee YS, Jo BY. Trend and Direction for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10(3):1-26.
- Ha YJ. The effect of parents' fostering attitude and youth's self-concept to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egu: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2001. pp.1-48.
- An RR, Park WY, Shin IY.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645-2652.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645>
- Kim SO, Yoo MH. Comparison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Gifted students.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2012;4(3):175-189.
- Kang WD, Ahn GYR.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5;20(4):739-764.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4.003>
-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 Co:1968.
- Choi ES, Kim WI.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among Soldi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6;17(1):503-519.
- Kim MH.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8;17(1):55-64.
- Lee HJ, Kim KH.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moral emotions and self-identit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1):190-191.
- Seo JS, Lee DH.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4):1599-1622. <http://dx.doi.org/10.15703/kjc.11.4.201012.1599>
- Salovey P, Mayer J, Goldman S L, Turvey C, Palfai T P, Pennebaker J W.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pp.125-154. <http://dx.doi.org/10.1037/10182-006>
- Lee SJ, Lee HK.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97;11(1):95-116.
- Epstein S.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1983.
- Jeun HJ. The effect of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rearing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7. pp.1-112.
- Park AC.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3;17(3):373-392.
- Kim HK, Han SM. The Effects of Health of Home Environ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1;17(1):121-161.
- Lee JL. Child-Mother Attach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05;14(3):379-386.
- Ahn SH, Kim HS.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color psychology on ego-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university student. Korea journal of art therapy. 2016;23(1):243-265.
- Yang JW.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and School Year Differences in Adolescent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4;20(2):83-110.
- Kim JA, Han GR.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probl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4; 15(6):2379-2399. <http://dx.doi.org/10.15703/kjc.15.6.201412.2379>
- Kim EJ.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and thei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2016;11(1):5-28. <http://dx.doi.org/10.16978/eccc.2016.11.1.001>
- Han JH, Shim MK.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2011;1(1):19-31.
- Kang EJ, Kim YJ.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06;10(4):113-133.